



”

”

( 24)



2013 년 12 월 28 일 23 시 05 분

네그랄 공동체에서

74 세로 52 년간 수도생활을 하신

안나마리아 바올라 잠비니 수녀님이

하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 (Lc 2,14).*

하느님을 찬양하는 천상 무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이 성탄의 분위기 안에서 성가정 대축일의 제 1 저녁기도에, 우리의 바올라 수녀님이 자신의 지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성소에 충실하였고, 소임에 관대 했던 빠스또렐라로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거행하기 위해 선한목자예수님의 인도로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1939 년 8 월 5 일 3 녀중 장녀로 Quinzano (VR)에서 눈의 성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 8 월 13 일 세례를 받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자아내는 신앙심 깊은 크리스찬가정에서 자라며, 수도성소를 성숙시켰다. 출신본당에서 신앙 공동체의 활동을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의 통교 안에서 사랑으로 교리교사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1959 년 1 월 3 일 수도회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1960 년 9 월 2 일 Albano Laziale (RM) 에서 입수련하여, 1961 년 9 월 3 일 바올라라는 수도명을 받고 첫 서원을 했다. 5 년 후 여전히 알바노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 바올라 수녀님은 좋은 성격과 사색적이고 실용적인 지성을 갖추어 음악, 시와 노래를 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본당사도직을 수행 할 때에 전례에 사용했습니다. .... 1961-1965 년 알바노에서, 1965 년-1966 년 Cinte Tesino 의 유치원에서 실습을 했으며 1967-1968 년 캄파라아에서 giovani Immacolatine 를 도왔고 1968 년에서 1976 년에는 레지오 갈라브리아의 초등학교에서 교리와 전례를 가르쳤다. 형제적 삶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동료들 좋아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자로는 모두에게 성실하고 조용하게 각 수녀님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돌봤습니다. 1976 년에 이동해서 1979 년까지 Rivalta sul Minco 에서, 그 후에 만도바에서 FISM 비서로 1982 년까지 봉사 했으며 , 1982 년-1999 년까지 총원 비서직을 수행하고 네그랄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몇 달 뒤 병이 찾아와 하느님의 뜻에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수녀님들의 영적 지도자로 2009 년까지 지냈습니다. 여기서 또한 관구의 비서소임을 수행했습니다. 폐암이 심각해질 때까지 그는 노모를 기쁨과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았습니다. 네그랄 수녀님들의 사랑 어린 돌봄을 받으면서 당신의 육화의 신비 안에서 승화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

12 월 초 네그랄 병원에 입원 해 있는 바올라 수녀님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종신서원 청원서에서 사용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말을 제게 했습니다 : “ 주님께서는 내게 당신의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무슨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주님과 그분의 어머니의 선하심을 믿고. ... 주님께 하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시편 27,4)”.

네, 바올라 수녀님 이제 수녀님이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노래했던 아름다운 목자이신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또한 창립 100 주년의 여정에 있는 바오로 가족을 위하여 전구해 주십시오. 끝없는 일치의 기쁨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수녀님과 천상의 빠스또렐레가 함께 우리와, 수녀님의 어머니, 가족 모두를 계속해서 동반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총 장

마르타 피노텔리 수녀

2013 년 12 월 29 일, 마닐라에서

*나자렛의 성가정 축일에*